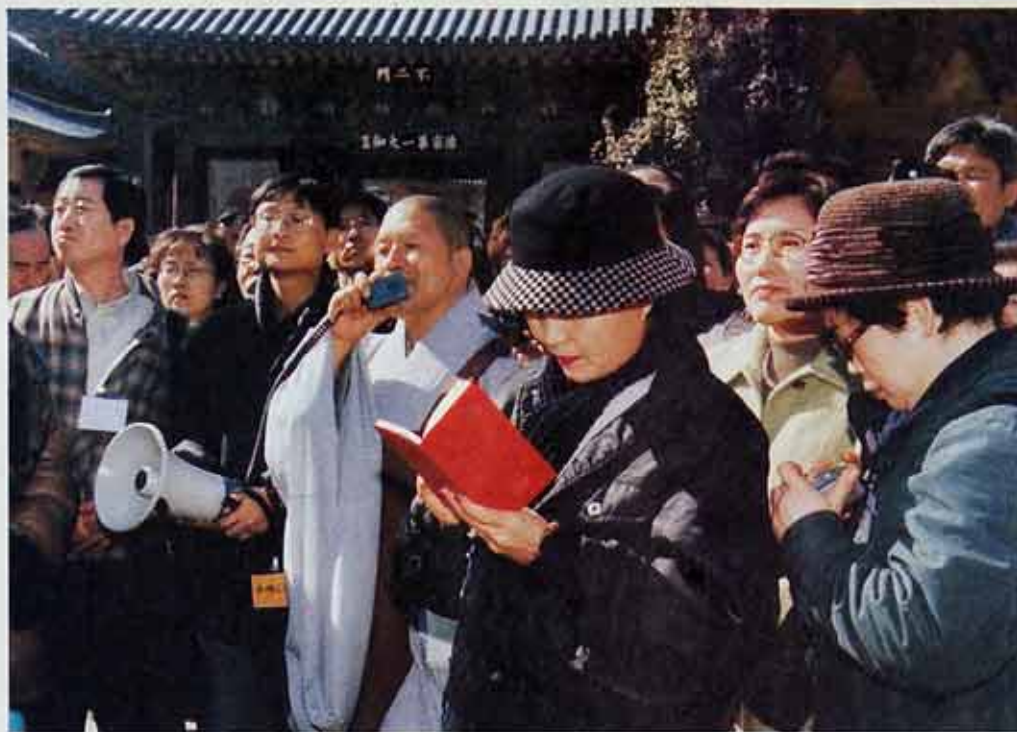


절기는 참으로 어둡다. 우수가 지난 2월 23일, 서울서 5시간여를 남쪽으로 달려간 영축산 봉도사는 불기운이 무려 느껴졌다. 현대불교신문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개최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의 첫 행사, 오후 1시 봉도사 보궁에 도착한 참가자 100명은 대웅전에서 열심히 절하거나 좌정 기도부터 했다. 문화재위원이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인 법하스님(봉도사 성보박물관장)의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강의를 잘 듣기 위한 '마음재'인 듯하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2월-통도사**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



◇통도사는 계율근본도량으로 삼국통일의 아픔을 제공한 가람이다. 테마여행단은 신라대 조성된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가람배치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봉도사에 대해 법하스님으로부터 현장 강의를 들었다. (사진=고영태 기자)

**전문가 연대**

**법하스님 (봉도사 박물관장·문화재위원)**

영축산 봉도사에는 적기보다 부처님 진골사리와 친히 수하했던 금강가사가 봉안돼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3보사(三寶寺) 가운데 가장 으뜸인 불보(佛寶)사찰이다. 신라 제27대 신덕여왕15년(646)에 도의국사로 부터 부처님 계맥을 이은 자장율사가 금강계단(金剛峯道)을 쌓아 세운 봉도사는 당시 어찌되었던 신라불교계를 정화하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대웅전 뒤에 사리탑만을 모신 것이 아니라 계단을 설치해서 계율사상에 근거한 사회질서를 통해 삼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으로 일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봉도사의 역사는 계율근본도량으로 금강계단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봉도사(通度寺)의 절 이름과 사격을 살펴보면 창건정신과 역사상을 알 수 있다. 출가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 금강계단에서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하고,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봉도사가 위치한 산세가 부처님 재세시 설법하시던 인도 영축산의 모습과 통한다는 뜻도 있다.

**신라 '無佛시대' 가람구조**  
**금강계단 중심 동서방향 주축**  
**上·中·下爐殿 삼분배치 조화**



◇금강계단 사리탑.

봉도사의 가람배치는 신라 때 조성된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매우 특이하다. 부처님을 법당의 주불로 모시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 열반 이후 6백년 가까이 보였던 '무불(無佛)시대'의 대표적인 구조이다. 무불시대에는 부처님 봉안 대신 사리를 탑에 모셔 예배한 사리신앙이 성행했다. 이처럼 봉도사의 계단을 중심으로 산과 사리탑이 중심이 되는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신라사찰은 남북 향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던 반면 봉도사는 금강계단사부터 동쪽방향으로 불이온 천왕문 일주문 등이 이어지는 동서 향으로 배치됐다. 이처럼 봉도사는 대웅전에서 일주문까지 동서향이 주축이지만, 이 주축에 직교하는 남북 향의 부축(副軸)이 3개나 있는 가람구조이다.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잇는 부축, 대명공전과 용화전 관음전을 지나는 부축, 영산전과 만세루가 이어지는 부축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부축에 의해 나누어지는 외적 공간은 서쪽으로부터 일주문 방향의 동쪽으로 상(上) 중(中) 하(下)의 위계가 설정되어, 상로전(上爐殿) 지역 종로전 지역 하로전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상중하로전의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의 중정(中庭)을 두어 외부 공간과 건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국내 유일한 건축양식으로 국보 제290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일관해 소실된 것을 인조22년(1644) 우은대사에 의해 중건됐다. 따라서 기단과 돌계단은 창건당시인 신라때 것으로 추정되며 문양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건물구조 형식을 보면 다포식 외3층 내4층목의 7포식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의 복합형인 7자형으로 동서남북 사방 어디서 봐도 정면과 같이 보인다. 대웅전에 건물 3면에 편액을 걸었는데, 대웅전의 동쪽이 '대웅전' 서쪽이 '대명공전' 남쪽이 '금강계단' 북쪽이 '적멸보궁'이라 했다.

봉도사의 자랑거리의 하나는 국내 유일한 사찰박물관이 있다는 것이다. 87년 80평으로 설립된 것을 현재 증축하고 있다. 88년 부처님오신날 개관목표로 공사중인 성보박물관은 1천3백평 대지에 4백80평으로 들어서 전사관에 국보 1점 보물 11점 지방문화재 34점을 비롯 1만여점의 유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봉도사는 현재 16개의 산내 암자와 118개의 말사가 있다.

**영축산 '無佛설법' 봄도량에 가득**

**불사리 안치 금강계단 계율도량 위용**  
**130여 참가자 봉발탐서 미륵세계 염원**



◇대웅전 앞의 봉발탐(높이 230cm). 가람배치가 적기보다 부처님의 발우와 가사를 미륵불에게 바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경건내용을 상징하고 있다.

봄은계단으로 길이높은 동산(산자봉)을 오르면 5층석탑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영축산 줄기로부터 이어지는 봉도사의 가람배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영축산 산세가 정상에서 마지막으로 맺힌다는 이곳은 봉도사에서는 가장 명당으로 알려져 비보(秘寶)스러운 신

앙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5층탑 안에는 1400년전 불 탄 경주 황룡사 9층탑에 봉안됐던 사리와 똑같은 사리가 모셔져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황룡사, 울산 태화사의 사리와 함께 '형제사리'라는 것. 이 사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보존해오던 것을 마침내 1992

년 뒤 찾아 5층석탑을 세우고 봉안했다. 사리탑의 사리공과 옥개석은 옛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복원했다.

봉도사를 찾으면 가장 먼저 부도군을 만나 선대 스님들에게 인사하게 된다. 여관촌을 정화해 사중에 흩어져 있던 부도 56구와 비석을 한자리에 모았다. 참배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조 석조 유물과 금석문을 연구할 수 있는 노천박물관인 셈이다.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문화유산의 해 제정 취지에도 잘맞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알아야만 비로소 좋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하스님의 평가다.

배진영씨(25, 서울 장위동)는 "절을 다녀도 그 절과 문화유산이 지닌 의미와 역사상을 알지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행사에 참가해 보니 봉도사에 대해 확연히 알게됐다"며 기뻐했다.

친정부모 남친 남동생 여동생 자녀2명 조카2명 등 온가족 10명이 참가한 박난숙씨(42·기업은행 근무)는 "종교는 갖고있지 않지만 애들 교육에 좋을 것 같아 함께 왔는데, 어른들도 모두 공부가 됐다"며 다음달 행사에도 꼭 가고싶다고 밝혔다.

장석태씨(48·서울 등촌동)는 "종교는 없지만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기위해 참가했다"며, 아들 지호군(16·동원중 3년)이 유익하게 배워 더욱 잘됐다 싶다고 말했다.

오후 3시30분, 참가자들은 1천3백여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영축산 봉도사를 확연히 만난 보람을 안고 서울로 향했다.

양산=위영란 기자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황토와 약초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방기와 황토라테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과 세포에 피공(皮孔)이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좌욕가능위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2) 미용효능

● 이성의 온갖 각종병환 및 변비, 치질, 배근살 등  
 ● 남성의 장강신 결핵 및 정액결핵, 만성 신초, 소변관, 배뇨통 등  
 (H) 30분~1시간 좌욕을 하십시오

● 얼굴 피부속 노폐물 제거가 보일게 됨  
 ● 피부노화방지, 화제, 태생  
 ● 피부염,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 두드러기, 모공, 기미, 여드름, 건비성들의 예방 및 제거  
 ● 미백, 촉촉, 기온저장, 건조, 신적, 깨끗한 피부영양  
 (H) 10~15분 얼굴피부부분을 하십시오

●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집 대 (별도선박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 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를 위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

● 동의보감 탕액편권,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신해경」 등의 옛 의서에 황토와 약초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의어있는 기록과 단언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초를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초가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 황토가루와 약초를 밀폐스공과 함께 깔판 깔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려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쬐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를 관료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범절효능 (4) 울분 배출 범절효능 (5) 인체온도 조절 (6) 구멍 채우고 찜질

● 체형치료사례요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에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 임,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가족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기입니다.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니까?  
 ◎ 편민을 할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앓고져 발 방법을 다쳐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생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기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뜸기로 다시 살아난 실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도 오셨을경우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10분씩 할라 하면 동시에 들 수 있는 편리한 쑥뜸기입니다. 5장 5대에 걸리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원이 되는 배, 흉, 단신, 중환, 3대에 걸리는 임종으로 뜨거운 고열이나 불리사공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기입니다.

보급가: ₩150,000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부설 :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